TV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 타임	30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여기는 젓가락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55 안녕 우리말(재)	00 수목드라마(재) 〈장사의 신-객주2015〉	00 주말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재)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축제
12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그녀는 예뻤다〉(재)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 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	30 앙코르 MBC 다큐스페셜 채식의 함정	00 건강클리닉
2		00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00 영재발굴단(재)
3	00 이언경의 직언직설	40 야생일기 55 튼튼생활체조(재)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아하! 동물탐험대 55 마법천자문	00 SBS 뉴스 10 SBS 이슈 인 사이드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00 TV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30 꾸러기 탐구생활
5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변신자동차 또봇
6		00 농업인의 날 특집 쌀의 진화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0 생방송 '빛날'	00 KBC 생방송 투데이 50 2015 프리미어 12 예선2차전 대한민국:도미니카공화국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8	20 풍문으로 들었SHOW(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	30 2TV 저녁 생생정보 2 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토크 뉴스속의 사람들 55 숨 터	00 수목드라마 〈장사의 신-객주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그녀는 예뻤다〉	30 SBS 8 뉴스 50 KBC 8 뉴스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00 특집 드라마 〈설련화〉
12	50 먹거리 X파일(재)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나누면 행복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다문화 사랑
06:10 한국 음악 기행(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꼬마버스 타요
07:45 로보카 폴리
08:00 딩동댕 유치원 1
08:10 한글이 야호2
08:20 딩동댕 유치원 2
08:30 두다다쿵
08:40 딩동댕 유치원 3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
09:40 부모-고수다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사선에서
13:05 지식채널e
13:1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13:40 사이틴-지구인 자격평가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미앤마이 로봇
14:30 코코몽2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마야의 모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재)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
18:05 출동 슈퍼윙스
18:2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2
18:25 내 친구 아서
18: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3
18:45 스쿨랜드 절대비법
18:55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4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중국 간쑤성, 문명의 길을 걷다〉
21:30 한국기행 〈가을 추풍령〉
21:50 EBS 다큐 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35 장수의 비밀
24:10 한국영화특선 〈즐거운 인생〉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Ⅱ-알짜개념〉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01:40 〃 〈확률과 통계〉
02:30 〃 〈기하와 벡터〉
03:20 〃 〈수학Ⅱ〉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5:00 뉴탐스런 〈화학Ⅰ〉
06:00 〃 〈지구과학Ⅰ〉
06:40 〃 〈세계지리〉
07:30 〃 〈법과 정치〉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09:10 〃 〈이은주의 수학Ⅱ〉
10:10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영어〉
11:00 〃 〈수학A〉
12:10 올림포스 〈국어Ⅱ-알짜개념〉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14:00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국어 A〉
14:50 올림포스 〈확률과 통계〉
15:40 〃 〈기하와 벡터〉
16:30 〃 〈수학Ⅱ〉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8:10 EBS N제 〈수학A〉
19:20 〃 〈법과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20:50 2016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

EBS플러스2

07:00 무역영어1급 시험대비강좌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08:30 AT자격 시험대비강좌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TV중학 〈국어(1)(2)〉
09:50 〃 〈수학 1(하)〉
10:30 〃 〈도덕 1〉
11:10 〃 〈국어(3)(4)〉
11:50 〃 〈수학 2(하)〉
12:30 EBS 특강
13:10 중간·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사회 1-2〉
13:50 〃 〈사회 2-2〉
14:30 〃 〈역사 1-2〉
15:20 기말학업성취도 평가 대비특강 〈사회 3-2〉
15:50 〃 〈사회 4-2〉
16:20 〃 〈사회 5-2〉
16:50 〃 〈사회 6-2〉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5-2〉
17:50 다큐 오늘
18:00 TV중학 〈국어(5)(6)〉
18:40 초등스토리 한국사 (1)(2)
19:20 필독 중학 국어 〈시〉
20:00 EBS 기획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중간·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역사 2-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1일(음 9월 30일 辛卯)

子 48년생 수용 여부를 놓고 상당히 고민할 것이다. 60년생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72년생 의견을 개진한다면 바람직한 반응이 있으리라. 84년생 일단 보류한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답이다. 행운의 숫자 : 53, 12

丑 49년생 수요가 늘지만 내용이 부실해질 염려가 있다. 61년생 돌발적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예의 주시하자. 73년생 이면에 숨어 있는 변수들까지 감안해야 안전할 것이다. 85년생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행운의 숫자 : 13, 84

寅 38년생 빈틈없이 도모한다면 기필코 이루리라. 50년생 전방위적인 분석을 요한다. 62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겠다. 74년생 가볍게 넘겨도 될 일이다. 86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리를 찾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9, 63

卯 39년생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51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실행하는 것이 지혜롭다. 63년생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다. 75년생 여태까지 공들여 왔던 것이 사라질 수 있다. 87년생 독창성을 상실한다면 무의미해진다. 행운의 숫자 : 05, 41

辰 40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넘어가도 된다. 52년생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다. 64년생 특별한 이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76년생 오늘의 복잡다단한 현상은 내일의 활성화를 상징하니 먼 안목으로 지켜보라. 행운의 숫자 : 20, 44

巳 41년생 전혀 다른 것이니 처음부터 관련시킬 필요는 없다. 53년생 절차는 제대로 밟아 둠이 편리할 것이다. 65년생 지금은 힘들더라도 점점 수월해질 것이니 진중하게 진행하자. 77년생 열린 마음이 발전을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5, 21

午 42년생 기회는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이니 눈여겨 봐야할 필요가 있다. 54년생 풍요한 하루가 전개될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66년생 노력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도다. 78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16, 34

未 43년생 적응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55년생 자신이 변해야 국면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67년생 대부분이 관련될 것이니 순발력 있게 적응해야만 할 것이다. 79년생 더딜수록 더욱 완벽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68

申 44년생 번거롭더라도 완벽하게 처리해둬야 훗날이 안전하리라. 56년생 어설프게 행하려거든 아니함만 못 하다. 68년생 명분에 이끌리면 실속이 없어지는 법이다. 80년생 현상 유지하는데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69, 75

酉 45년생 순풍이 불어올 것이니 잘 활용해 보자. 57년생 종합적으로 살피되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유용하다. 69년생 구색을 맞추다 보면 효율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81년생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1, 82

戌 46년생 온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보이니 강우에 대비해야겠다. 58년생 유사한 상황만 반복해서 계속 될 뿐이다. 70년생 시험 단계에 그칠 수도 있으니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다. 82년생 기운이 흉흉하니 꿈도 꾸지 말라. 행운의 숫자 : 74, 91

亥 47년생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로 보람을 느끼게 된다. 59년생 발설하지 말고 끝까지 함구하고 있어야 한다. 71년생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음이 나을 것이다. 83년생 강함과 유연함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라. 행운의 숫자 : 83, 6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200억 호랑이 CG보다 연기력이 더 중요"

영화 '대호' 조선 명포수 최만덕 役 최민식

영화 '대호'에서 조선의 명포수 역할로 나온 최민식은 드라마가 이 영화를 지배할 수 있게 연기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관객들이 돈 많이 들인 컴퓨터 그래픽 영화로 인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영화 '대호' 제작보고회가 박훈정 감독, 최민식, 정만식, 김상호가 참석한 가운데 10일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 열렸다.

영화 '대호'는 지리산에서 살았던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와 이 호랑이를 잡고자 하는 사냥꾼의 이야기이다.

1925년 조선 최고의 명포수로 이름을 떨치던 '천만덕'(최민식)은 더는 총을 들지 않은 채 지리산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 지리산에 사는 '산군'(山君)이라는 불리는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 '대호'를 찾기 위해 몰려든 일본군 때문에 마을은 술렁거린다.

일본 고관 '마에조노'(오스기 렌)는 대호를 잡기 위해 '구경'(정만식)과 '칠구'(김상호) 등 조선 포수대를 다그치고, 구경은 만덕을 포수대로 영입한다. 그렇게 조선 최고 명포수 만덕과 조선 최후의 호랑이 대호간 맞대결이 성사된다.

최민식은 평생 생명을 죽여야만 자기가 먹고사는 직업인 사냥꾼의 직업에 매력을 느껴 영화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생을 목숨 끊는 짓을 하는 사람의 결말이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최민식은 영화의 주인공이 호랑이인 만큼 컴퓨터그래픽(CG)이 영화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관객들의 관심이 CG에만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휴먼 드라마가 이 영화를 지배할 수 있게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200억원 가까이 제작비를 사용한 라이언 킹이 되지 않으려면 CG라는 생각이 없어질 만큼 드라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때문에서라도 "'천만덕'의 가치관, 세계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민식이 시나리오를 보고 '구경'은 딱 이 배우가 맡아야 한다고 추천했다는 정만식은 "휴대전화에 호랑이 사진을 저장하고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전에 늘 호랑이 사진을 봤다"며 얼마나 자신이 맡는 역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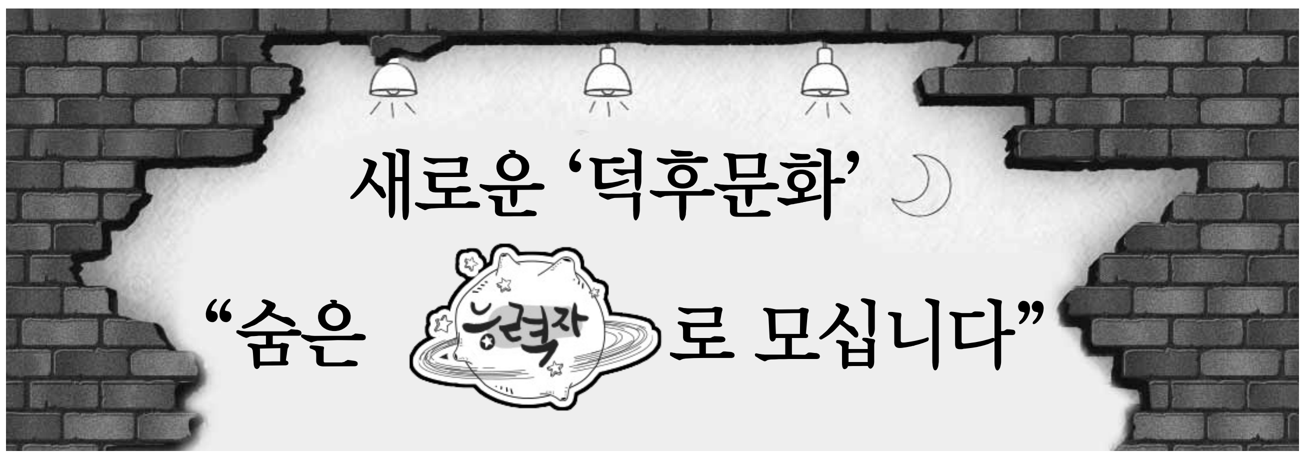
감독, 최민식, 정만식 등 3명의 호랑이띠 사이에 홀로 개띠인 김상호는 "(촬영하는) 6개월간 떨려서 죽는 줄 알았다"고 너스레를 놓았다.

그는 "시나리오를 보고 정말 가슴이 떨렸다.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했던 차에 시나리오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연기로)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출연 계기를 말했다.

최민식은 동료들과 공동작업이 주는 행복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우리끼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쑥스럽지만 옆에서 같이 호흡하고 연기하는 동료들과 같은 작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새삼스럽게 느꼈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행위에 감명을 받는다"고 말했다.

영화 '신세계'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던 박훈정 감독은 영화 '대호' 시나리오를 '신세계'나 '부당거래'보다 앞선 2009년에 완성했다고 전했다. 곧 시나리오는 팔렸지만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영화로 제작이 미뤄지다가 본인이 감독을 맡게됐다고 했다.

박 감독은 "만약 CG의 퀄리티가 100%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계획된 콘티 이외의 촬영도 많이 했다"며 "2년간 최선을 다했고, 가진 역량 안에서 최선을 뽑아냈다"고 말했다.



MBC '능력자들' 김구라·정형돈 공동 MC

바리스타 임정도(34)씨는 퇴근 후면 직접 익힌 기술로 오드리 헵번 피규어(모형 장난감)를 만든다. 그 완성도는 헵번 가족조차 찬탄을 금치 못할 정도다.

회사원 송진호(32)씨는 TV 사극 대사를 줄줄 왼다. KBS 1TV '광개토대왕' 계필, MBC TV '신돈' 원현 스님, KBS 2TV '바람의 나라' 연화 등 그는 드라마 사진만 봐도 어느 작품의 어떤 캐릭터인지 단번에 짚어낸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깊이 파고드는 이른바 '덕후'(일본어 '오타쿠'의 변형으로 특정 분야의 마니아를 의미)다. 한때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 비호감의 대상으로 평가받았던 '덕후'는 이제 무서운 내공의 전문가, 유행을 선도하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말 MBC TV 추석 파일럿(시범제작)으로 방송된 '능력자들'은 젊은 층에 친근한 '덕후'를 내세워 화제를 모았다.

프로그램은 치열한 편성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13일 첫 방송을 앞두고 '능력자들' 제작진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지선 PD는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이었던 '덕후'가 이 시대 신지식인이 됐다는 것이 기획 배경"이라고 밝혔다.

"'무한도전'에 출연한 (가수) 아이유 덕후를 보고 '사람이 한가지를 파면 저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한 데서 출발했어요. ('덕후'가 인정받는) 사회 현상을 읽은 것도 있고요."

'능력자들'에서는 각 분야 '덕후'들이 등장해 이른바 '덕력'(마니아적 기질)을 겨룬다. 편의점, 버스, 열대어 등 애정의 대상은 다르지만, 단순히 열광하거나 수집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하나의 능력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다.

제작진은 그렇다고 출연자의 '덕력'을 검증하는 프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나에 모든 것을 바친 '덕후'의 애정을 순수하고 담백하게 보여주겠다는 설명이다. '덕후'를 다소 자극적으로 묘사했던 케이블 예능 tvN '화성인 바이러스'(2009~2013)와는 다른 정보 프로그램에 가깝다.

허항 PD는 "버스에 평생을 바친 출연자가 1회에 나오는데 감동을 느꼈다"며 "어떻게 보면 외롭게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

이 PD는 '덕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방식이 새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많이 고민했다"며 "'덕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원했기에 고전적인 방식으로 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김구라와 정형돈이 정규 방송의 공동 MC로 낙점됐다. 프로그램은 예능가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이 벌어지는 금요일 밤에 편성됐다. KBS 2TV '나를 돌아봐'와 tvN '삼시세끼', SBS TV '정글의 법칙'이 경쟁작이다.

허 PD는 이에 대해 "김구라, 정형돈 같은 분들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니 '덕력'이 쏟아져 나온다"며 "그런 이야기가 일반인들 공감을 충분히 살 만큼의 '생활밀착형 토크'가 된다"라고 말했다.

엑소, 일본 데뷔싱글 역대 한국가수 1위

첫주 판매량 14만7000장 기록

그룹 엑소가 일본에서 역대 한국 가수의 데뷔 싱글 사상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

1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4일 일본에 출시된 엑소의 데뷔 싱글 '러브 미 라이트~로맨틱 유니버스~'(Love Me Right~romantic universe~)는 발매 첫주 총 14만7000장의 판매고를 올려 오리콘 주간차트 1위에 올랐다. 이번 판매량은 역대 한국 가수의 일본 데뷔 싱글 사상 최다 판매량이다.

일본 오리콘은 10일 홈페이지 뉴스를 통해 '엑소, 일본 데뷔 싱글 1위! 한국 가수 역대 1위인 첫 주 14.7만장'이란 제목으로 주간차트 1위 소식을 전하며 "첫주 판매량은 한국 아티스트 데뷔 싱글로는 역대 최고"라고 보도했다.

이번 싱글에는 국내에서 발표한 정규 2집의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곡 '러브 미 라이트'의 일본어 버전과 신곡 '드롭 댓'(Drop That) 등 2곡이 수록됐다. 이로써 엑소는 돔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른데 이어 음반까지 정상을 섭렵하며 세를 과시했다.

이들은 지난 6~8일 도쿄돔에서 일본 첫 돔 콘서트를 개최해 3일간 14만5000여 관객을 모았다. 일본에서 해외 가수 사상 최단 기간에 돔 콘서트를 개최하는 기록을 세워 종전의 본조비 기록을 깼다. 엑소는 오는 13~15일 오사카 쿄세라돔에서 돔 투어를 이어간다.

/연합뉴스